

응답하라 ‘방송과기술’

신춘대담 연합회 회장단과 함께



1991년 1/2월호, 통권 제16호

글을 수록하며

1991년 1/2월호 (통권 제16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26년 전 연합회의 고민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숫자로 접하니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고민의 지점은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연결됨을 느낄 수 있네요.

-편집자 주-

인간에게는 적절한 매듭짓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한해를 기준으로 자신의 주변을 정리, 매듭짓는데……
그럼 우리 방송기술인들의 한해는, 연합회의 새해는 어떤 계획인지, 연합회 회장단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일 시 : 1991. 1. 17일 오후 1시

장 소 : 연합회 사무실

참 석 : 안덕상(연합회 회장)

문정철(MBC 협회장)

정연도(교육방송국 협회장)

조기환(PBC 협회장)

최상억(CBS 협회장)

사 회 : 조용대(KBS 편집위원)

기록·정리 : 박명혜

사회 | 먼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각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담에서는 방송환경의 격변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변화 속에서 우리 기술인들은 이에 얼마나 적응하고 발전시켜나왔느냐는 점과 또 각사가 연합해 모인 우리 기술인연합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먼저 3대 연합회 안덕상 회장님께서 3대 연합회의 추진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지요.

안 | 우선 각사 협회장님,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연합회 회원들 개개인 모두에게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또 작년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올해는, 아니 영원히 없기를 바랍니다만 평화방송에서 기어이 또 터지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지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을 돌아보면 우선 부끄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회기의 큰 성과라면 아무래도 가입사의 증가라고 하겠지요. 물론 극동, 불교방송 등이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평화방송과 기독교방송의 가입이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술 세미나를 열었고, 민연련과 다른 연합회와 공동으로 방송발전 문제에 대한 심포지움을 주최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일보사가 주최하고 우리가 후원하는 방송장비 전시회를 올여름에 개최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세미나는 연합회가 주최기로 하고 한국일보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엔 한 일이 없어서….

문 | 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도와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책임을 느낍니다.

조 |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PBC로서도 잊혀지지 않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4월 15일 첫 전파를 발사했고….

첫 전파를 발사할 때는 커다란 기대와 희망적인 모습뿐이었는데 요즘 노·사간의 갈등으로 기대가 많이 반감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작년의 일이라 믿어 보고 91년도에는 우리 평화방송이나 방송 기술인연합회원 모두에게 건강이 함께 하시고, 평화로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기원해 봅니다.

정 | 전 말재주가 없어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함께 웃음) 연합회와 위 치상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보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좀 더 능동적인 모습으로 연합회 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 1990년 한해의 방송계는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가장 파란이 많은 해였다고 봅니다.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 계획에 따라 각 방송사가 한 해 동안 떠들썩했습니다. KBS의 공권력 투입은 지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고, MBC, 평화방송도 그 여파가 이어져 지금껏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기독교방송은 목동에 신사옥 건축을 시작했고 청주 FM 방송이 개국을 했습니다. 또한 60년 만의 대폭으로 능곡송신소가 침수됐을 때 저희 CBS 기술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해 최단시간 내에 방송 송출에 이상이 없게 한 것 등은 CBS 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한해였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저희 CBS 기술인협회가 방송기술인연합회에 가입하여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도 한해를 회고해 볼 때 커다란 의미로 느껴집니다.

문 I 아까 안 회장님이 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 또한 책임을 느끼며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물론 지난해 방송환경이 어려웠지만 곰곰이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 중에는 연합회 회칙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방송사에서도 가입을 할 텐데 현실성이 없는 조항, 불합리한 조항은 개정을 해서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해에도 회칙 상의 문제로 어려운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안 I 제가 생각하기에도 불합리한 회칙 개정을 통해 연합회가 일을 하는데 운신의 폭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문 I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꾸준히 진행해온 것은 연합회지 만드는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최 I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 왔습니다만 좀 더 연합회 차원의 세미나나 조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방송기술인들이 현업에서 실제 체험한 일들을 모아 기획, 구성이 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좋은 안건이나, 연합회 차원의 공동 안건이 있으면 연합회 사업으로 많은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기술인 전문지로서의 회원들의 의지가 굳건한 토양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지 발간하는데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기업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광고 유치 및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연합회지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 I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편집 방향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편집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가고 있지 않나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합회지는 기술전문지화해서 연합회를 꾸려나가는 자금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공익자금이 적게 책정되고 또 공익자금만으로 연합회를 꾸려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예나 소식 등의

내용은 각 회원사의 발간물을 이용하고 연합회지는 기술전문지화해서 스폰서를 많이 확보하면 운영자금원도 생기게 되리라 봅니다.

안 I 그 점에 있어서는 저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신데요. 저는 이 책이 격월간이 아니라 월간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시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일반 종합잡지의 성격을 띠게 해서 가볍게 아무 곳에서나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일반인들 모두가 쉽게 방송기술이라는 지식을 접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깊이 있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연합회지는 처음 창립해서 발간할 때 기술이 위주가 되기보다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서 제호가 방송기술인이라고 붙여진 것임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질향상이나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순수 기술전문지를 한층 더 내야 합니다. 또 노조는 전임자들이 대거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임원진을 비롯한 모두가 현업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이 일을 꾸려나가려니 고충과 애로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답답한 현실이지요. 하지만 재정자립의 측면에서는 문 회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재정자립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I 확실한 편집 방향을 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셨는데요. 15호까지 발간된 현시점에서 편집 방향을 한번 정돈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 I KBS 쪽에서도 자회사 설립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립 얘기가 진행·시행되고 있는 MBC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문 I 설립목적이 순수하다고만 한다면 경영을 합리화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안 I 목적이 순수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의도를 가진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의심과 걱정이 함께 합니다.

사회 I 자회사 문제가 순수 사업으로 인한 이익 추구하고 함께 경영합리화가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이겠지요. 한데 신분 변화가 함께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어때십니까?

문 I 그래요. 하지만 설립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회사가 생긴다 해도 시장이 없어요.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회사가 생겼을 때 과연 경영의 합리화가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지요. 편제를 달리 한 종속 개념의 회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사회 I 만약 이런 구도들이 자생적으로 발생되어 나왔다면 어떨까요?

안 I 그건 문제가 다르지요. 가장 하위 체계에서부터 발생되어 그



안덕상



문정철



조기환



최상익



정연도



조용대

것이 정책입안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건의가 되어졌다면 감량경영을 앞에 내세운 힘의 분산이라는 의심은 없겠지요. 자회사들은 순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없어도 되는 사장, 전무, 이사, 국장, 부장, 차장들이 생기고 그 밑에 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지요. 또 그들을 위해서 사무공간, 집기 등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비가 쓰이게 될 텐데.... 이렇게 따지면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원가를 책정하고 그 원가에 따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보다 엄청나게 높은 원가를 인정하고 자회사의 경영유지를 위해 Program 들을 모회사가 사들인다면 감량경영이 아니라 경영의 방만과 구조적 문제점을 더욱 부채질하는 격이란 말이지요. 기업을 경영하는 기본 목적은 이익이 남아야 하는데, 이익이 안 남는 기업은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똑같은 이야기로 예전에 KTA로 이관되었던 것과 유사한 맥락인데, 그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사회 I KTA에 갔다가 온 것이 실패했다고 하셨는데, 일부에선 구조적인 면을 제외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발전 가능성도 —기술 개발, 송·중계소 자동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문 I 글쎄, 자동화나 기술개발은 그 맥락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동화는 사회 환경 변화와 관계가 있어요. 요즘은 많은 수당을 지급해도 열악한 근무환경을 기피하는 경향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송·중계소의 무인화 문제가 대두됐지 KTA에 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도체 기술의 발달은 송신기를 All Solid State화함으로써 정파 사고에 대한 운영자의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무인화가 급진전되었다고 봅니다.

사회 I 네, PBC는 Network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까?

조 I PBC의 가청지역은 아직 서울·경기지역입니다. 출력도 5Kw밖에 안되는데, 점차적으로 출력도 5Kw에서 10Kw로, 가청지역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중계소까지는 무인화하려고 합니다.

사회 I 지난해 말 개국한 교육방송국은 어떻습니까?

정 I 네, 현재 부분적인 시설 확충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

적인 문제로는 교육방송의 위상 정립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 시국에서는 급박한 현안으로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상태에서 얘기한다면 비록 외형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부설 교육방송으로 제안된 수준에서 자율권을 확보할 틀을 갖추고는 있지만, 조직이나 재정 그리고 시설과 기자재들의 제반 제작 여건이 대단히 미흡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갈만한 자율성도 그다지 확실한 편이 아닙니다.

문 I 그럼 교육방송이 독립되면서 기획단계에서 교육방송의 종사자가 참여는 하고 있습니까?

정 I 아시아시피 교육방송은 지난해 12월 27일에 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방송이 현상태로 개국하는데 참여한 교육방송 종사자는 대단히 제한된 선이라고들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방송부원장, 또는 최소한 기획 국장 이상의 선에서 교육부 관계자와 접촉을 가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육방송의 개국 일정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방송 현업자들의 요구나 최소한의 합의 등이 개입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증거로 총수요(TO) 452명 중 제작인원이 166명인데 비해 기술인원이 120명 선으로 배치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안 I 기술인원보다 제작인원이 더 많다는 것도 모순이군요.

문 I 다른 방송정책, 가령 전파중장기계획에도 방송기술인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정 I 소위 경영을 한다는 사람들이 과연 합리적인 사고력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 I 평화방송국의 경우에는 기술직 직원들의 수요는 어떻습니까?

조 I 물론 모자라는 편입니다. 기술쪽으로만 봐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는 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이것은 직제개편과 아울러 천천히 진행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PBC 송신소와 같은 경우는 아주 열악한 상태이지요.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져 나가리라고 봅니다.

안 I 신입사원 모집은 방송환경과도 밀접한 함수관계가 있으리라 보는데요?

문 I 신입사원 채용 문제는 현시점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만 검토되어서는 안 되고 회사의 장래문제까지를 포함해서 계획되어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안 | 지속적으로 뽑아서 흐름을 유지시켜야 되겠죠. 지금 현재 KBS는 맞고대하는 송·중계소도 많은데 이런 측면에서 후생복지의 면도 연합회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문 | 글썄요. 그건 노동조합도 있고, 목소리의 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노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안 | 물론 노조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노조가 기술만을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각사가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회사 경영진이나 노조가 착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 | 방송정책과 환경변화의 차원에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 | 정부의 전파중장기 방안을 보면 주파수 재배치와 전파 개방에 따른 전파료 징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파수 재배치 계획은 ETRI에 용역을 주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해당사자인 우리 방송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실무자인 KBS, MBC 등을 배제하고서는 주파수 재배치는 불가능한데도 양방송사를 배제한 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파료 징수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송신공사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번에 발간된 90년 전기통신 연감을 보니까 체신부에서 한국의 TDF에 관해 연구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우리는 모르고 있고, 정부에서는 역시 우리를 배제시킨 채 전파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우리가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연합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 관심을 가지고, 현업자들인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리라 봅니다.

문 | 거기엔 세밀하고 논리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요. MBC협회는 정책연구팀이 구성되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KBS도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공동보조를 맞추었으면 합니다.

사회 | 좋은 의견이십니다. 기술인 스스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민방의 설립과 CATV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안 | 현재 몇 안 되는 채널을 가지고도 찢찢매는데, CATV의 다채널이 가세하면 어떻게 다 소화해낼지 걱정이 됩니다.

정 | 다채널은 시청자들에게 채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측면이 있지만, 경영을 위해 흑자를 내야 하는 다소의 방송사들은 필요 이상의 소모적인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결과는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안 | 공통적인 생각이군요. 프랑스 조사 결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몇 채널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최대 5~6채널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은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방송 중에 있는 4채널과 SBS, AFKN을 합치면 6채널인데, 거기에 CATV가 또 뛰어 들어가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하지요. 프랑스와 우리와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수준, 인구 등을 배제하고서도 말입니다. 더구나 걸프 전쟁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긴축을 강조하는 마당에 말입니다. 문자방송의 경우도 외국에서도 몇 개 없다고 하던데요.

문 | 우리나라 문자방송은 Data Bank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어 별로 실효를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 | 음성다중방송이나 문자방송이 뉴미디어적인 측면에서야 칭찬할 만하지요.

사회 | 앞으로 정부에서는 무궁화호나 HDTV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안 | 무궁화호가 발사가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적자를 보리라 예상되지만 기술적 측면이나 남·북의 동질성 회복이라든가 위성 공간의 확보, 국제적 지위의 신장 등의 정치적 측면에서



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 PAL, NTSC, SECAM 방식 등의 전송방식에 대한 연구가 깊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 I 이 모든 계획들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일환인 체신부의 방송기술연구소의 설립 등은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어느 나라에 예측되지 않고, 우리 자체의 독자적인 system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노력해야지요. 방법은 정부의 부설기관인 체신부의 방송기술연구소 등은 방식 연구를 하고 각 방송국의 기술연구소 측에서는 응용연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사회 I 민간기업의 방송장비 참여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I 그 얘기에 관해서는 방송기술인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정부에서도 너무 키우지 않았고 특히 우리 기술인들 자신이 너무 외국 장비만을 선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꼴이지요.

안 I 굳이 변명을 하자면 <방송사고>를 걱정해 외국 장비만을 고집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극복하려고 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주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문 I 정파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했다는 얘가지요.

안 I 방송사고에 대한 개념 정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대처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외국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무척 관대한 것 같습니다. 10년도 전 일 겁니다. 그땐 서독에 연수를 많이 갔었는데 갔다 온 사람들 말을 들으니깐, TV 주조를 구경시켜주면서 방송 중인 Program을 기기 설명을 위해 방송을 끄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하더군요.

정 I 만일 기업이 방송기기 제작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 기업은 이익금의 일부를 방송에 재투자해야 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올림픽 때 장비가 일부 국산화되었긴 하지만, 우리가 육성화시키지 않아서 방송장비제작 중·소기업이 도산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문 I 일본이 그런 면에서는 무척 잘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NHK에서는 많은 장비 개발을 선도했다고 하더군요. KBS도 그러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조 I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지요.

사회 I 가끔 방송장비를 보수할 때 보면 외국 장비에 국산 부품이 상당수 끼여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의 기술 수준은 상당 수준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육성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장비의 국산화 운동, 시급하다고 봅니다. 거

기엔 우리 엔지니어들의 숙련수범하는 자세도 필요하겠지요. 끝으로 차기 집행부에 대한 바람을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I 눈을 국내에서 국제사회로 더욱 넓혀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방송사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해외 견문을 많이 늘렸으면 하고 기술교류의 차원에서 연합회가 많은 공헌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난 88올림픽이 끝나면서 세계 방송기술 세미나를 열었던 것도 이런 차원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방송사들의 연합회 가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문 I 각사의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업무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여 현업에 도움이 되도록 연합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조 I 우리 협회 차원에서 본다면 가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커다란 어떤 일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잘 다듬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게는 협회에서부터 크게는 협회 나름의 위상 정립과 함께 세미나, 해외파견까지 말입니다.

정 I 방송기술인으로서의 전문적 소양을 배양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장을 조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포함해 앞서 사회자님,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일들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재정자립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최 I 먼저 각 방송 매체에서 주야로 수고하는 기술인들이 방송기술한 가지 목적을 위해 매진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방송기술인들이 현업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문제점 등을 기탄없이 서로 주고받으며 축적된 현업기술의 성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가고 역할을 해 주시고, 방송기술인의 위상 정립과 전문성을 위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열의를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 I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91년도 신춘대담을 마칠겠습니다. 